

2025년 01월 02일 (목) - Signal evening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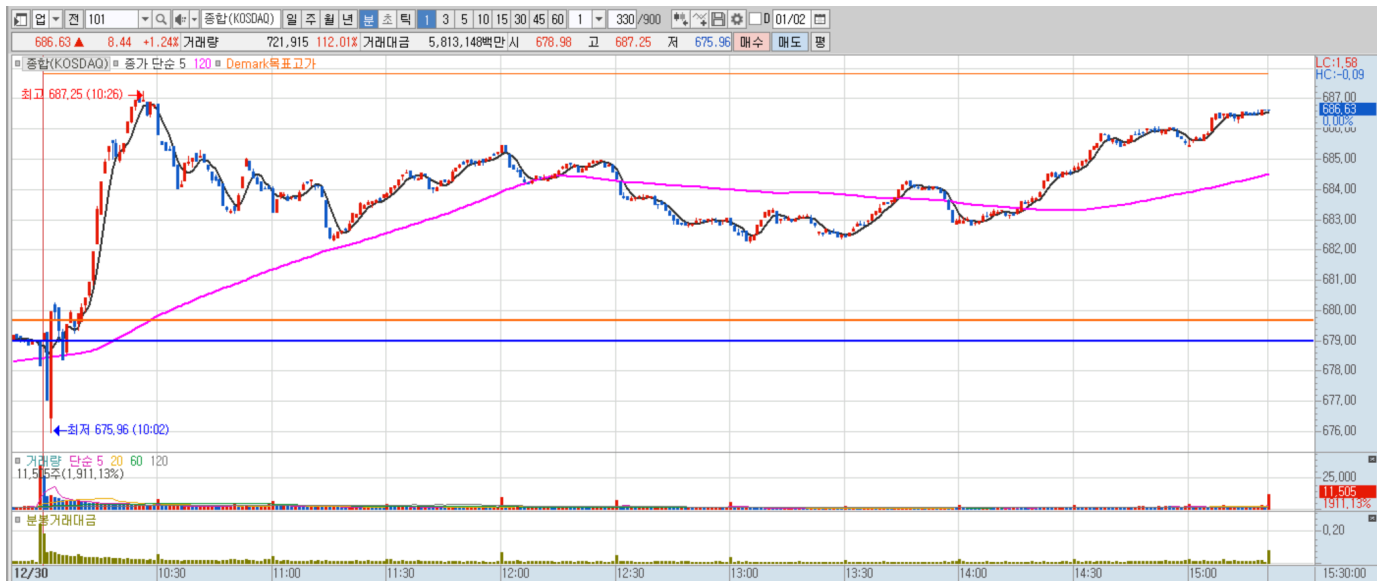
당일 새벽 제공된 'Signal Report'에서 시장에 강하게 부각된 요소를 복습하는 콘텐츠입니다. 매일 장 마감 후 저녁에 제공됩니다.

2025년 01월 02일 (목) - Signal evening

▶ 코스피 지수 2398.94 (-0.02%)



▶ 코스닥 지수 686.63 (+1.24%)



[01월 02일 (월)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 로봇 >

- 레인보우로보틱스 (+29.99%)(726K) / 두산로보틱스 (+28.11%)(4112K) / 유진로봇 (+22.12%)(7062K) / 아진엑스텍 (+19.30%)(1164K) / 큐렉소 (+18.58%)(1171K) / 휴림로봇 (+17.18%)(45518K) / 에브리봇 (+16.41%)(1925K) / 뉴로메카 (+14.61%)(1469K) / 해성에어로보틱스 (+13.19%)(677K) / 나무가 (+11.20%)(450K) / 로보로보 (+10.61%)(2938K) / 라온테크 (+10.61%)(797K) / 코닉오트메이션 (+10.00%)(2613K) / TPC (+9.97%)(887K)

올사년 새 전쟁터는 '시로봇'...재계 총수들, '휴머노이드' 등 선점 사활

메리츠증권 "삼성전자 자회사 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시너지 기대"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미래로봇 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는다.

● **에스비비테크 (+30.00%)(593K) / 이랜시스 (+29.82%)(8903K) / 인탑스 (+15.87%)(1278K) / 에스피지 (+21.58%)(3854K)**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앞세워 휴머노이드 개발...수혜업체는 어디

에스비비테크는 정밀감속기 업체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하모닉 감속기를 웨어러블 로봇 붓핏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랜시스는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데 에스비비테크와 함께 붓핏용 감속기 벤더업체이나 이랜시스가 메인 공급 업체로 파악된다고 했다. 인탑스는 완제품 조립업체로서 붓핏 시제품 조립 생산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림피티에스는 기타 감속기 업체로 과거 삼성중공업 향으로 감속기를 공급한 레퍼런스를 통한 삼성전자와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에스피지는 정밀 감속기 업체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동로봇 및 이동형 휴머노이드 RB-Y1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 **삼익THK (+17.71%)(1491K)**

[특징주] 삼익THK, 삼성전자와 '6축 다관절로봇' 공동개발...삼성 레인보우 최대주주 소식에 ↑

삼익THK는 2016년 삼성전자와 함께 6축 다관절 수직 로봇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6축 다관절 수직 로봇은 6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이어 골절, 변형교정을 위한 복원시스템 의료용 로봇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다. 현재는 삼성의 생산 라인의 주요 로봇 사업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삼익THK 지난해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모 회사격인 한국과학기술원(KIST)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웨어러블 고관절 복합체 근력 보조 로봇 기술을 이전을 받았다.

● **우림피티에스 (+13.45%)(1432K)**

[특징주] 우림피티에스, 삼성과 '로봇용 정밀 감속기' 개발...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 수혜기대감 ↑

우림피티에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림피티에스는 로봇용 정밀감속기의 양산을 위해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설비투자과 개발을 진행했고 우수한 성능의 초정밀 감속기를 개발 완료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등과 '제조 로봇용 핵심 구동부품(서보모터 감속기) 성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증' 국책과제 사업에 참여해 최상의 독자 모델 제품개발을 완료했고 2020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 **알에스오토메이션 (+11.86%)(5521K)**

(24.12.30)[특징주]알에스오토메이션, 엔비디아 상반기 '젯슨 토르' 출시 예정...핵심부품 부각 ↑

(24.02.07)알에스오토메이션, 삼성 '반도체 공정 100% 무인화'에 로봇컨트롤러 수주 '날개 다나'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로봇컨트롤러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알에스오토메이션은 2005년 이래 매년 로봇제어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화·무인화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 다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 **이삭엔지니어링 (+10.71%)(315K)**

(23.01.11)[특징주] 이삭엔지니어링, 삼성과 독점 계약 소식에 상한가

이삭엔지니어링은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국내외 플랜트 HVAC 콘트롤(Control) 부문에 대해 2년간 입찰 없이 독점계약을 하게 되는 프레임 어그리먼트(Frame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삭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등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인텍플러스 (+6.88%)(486K)

[특징주]인텍플러스, 투자사 로봇AI 스타트업 플라임 레인보우로보틱스와 MOU 부각↑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플라임은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개발한 이동형 양팔로봇에 플라임의 AI 소프트웨어를 적용, 고도화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제조 및 조립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텍플러스는 2023년 플라임에 30억원을 투자해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젠알앤엠 (+30.00%)(3275K)

휴머노이드 경쟁 뛰어든 삼성전자...로봇株 동반 급등(종합)

(24.11.07)FS리서치 "하이젠알앤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시 수혜 가능성↑"

하이젠알앤엠은 범용모터 국내 과점 업체로, 전신인 LG전자 모터사업부까지 따졌을 때 업력은 60년에 달한다."서보모터 사업부에서는 협동 로봇용 모터 및 구동 모듈 등을 생산하며 로봇 업체를 고객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EV용 모터와 인버터는 골프 카트 등 소형전기차용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성장동력은 테슬라를 선두로 커지고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목표로했다"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능동 관절 수가 18~75개로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3~6개가 쓰였던 것을 고려하면, 로봇 액츄에이터 시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에스피시스템스 (+30.00%)(2179K)

(24.08.07)[특징주]에스피시스템스,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대량생산에 공급 이력 부각

에스피시스템스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로보틱스) 및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ICT) 전문 기업이다. 주력 부문인 로보틱스는 갠트리 로봇을 주축으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다. 에스피시스템스는 기존 외산 위주의 갠트리 로봇을 국산화해 2007년부터 현기차 그룹에 공을 개시했으며, 컨설팅·설계 등 토털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118개 공장 라인에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했다. 2019년 상장 당시의 경우 현기차 그룹 매출 비중이 90%에 달했다.

●클로봇 (+25.59%)(27638K)

[특징주] 클로봇, 'AI 로봇 혁명' 엔비디아와 보스턴다이내믹스 '56조 시장' 동맹 본격화...국내 독점 판권 '주목'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엔비디아의 로봇 학습 소프트웨어 주요 고객사 가운데 하나다. 이미 자사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에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을 위해 엔비디아의 젯슨 자비어 NX모듈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AI연구소와 엔비디아가 협력해 '스팟 RL 리서처 키트(Spot RL Researcher Kit)'를 개발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클로봇은 지난해 8월 보스턴다이내믹스 파트너십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스팟'의 국내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 (+25.00%)(1868K)

[특징주] 케이엔알시스템,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화 소식에 보스턴다이내믹스 유압 로터리 액추에이터 납품

케이엔알시스템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유압 로터리 액추에이터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유압과 전동 시스템에서 24년간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유압로봇시스템 사업은 로봇 구조 설계부터 핵심 부품 제조,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핵심부품을 모두 국산화하고 풀라인업을 가동하고 있다.

●모델솔루션 (+23.60%)(1454K)

모델솔루션, 젠슨황 '로보틱스의 미래' 극찬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 양산

뉴빌리티는 하드웨어 전문 모델솔루션과 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글로벌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혁신적인 자율주행 로봇 양산 및 관련 솔루션 개발에 대한 협업 체계를 마련,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로봇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뉴빌리티는 2024년 글로벌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에 선정되었고, 모델솔루션은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 기업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1000여 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혁신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업계 최상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미지스 (+22.43%)(1268K)

(24.12.24)이미지스 새주인 될 타이거로보틱스 이력 '눈길'

(23.09.21)"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라"...삼성이 탐낼 기술, 촉각 원천기술 '이미지스' 주목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플렉시블 센서 기반 촉감 저장 재생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이미지스가 공동으로 원천기술을 개발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수백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과제였으며, 한국로봇산업협회 인간로봇 상호작용 분과위원회에 촉감 데이터연계 표준을 제출하며 국가 표준화 인증 추진까지 동시 진행됐다. 이미지스 측은 "인간형 로봇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 모사 생체모방형 인공피부기술 촉각 솔루션을 국책과제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며 "국책과제 외에도 촉각 관련 특허만 수십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로보틱스 (+19.26%)(1351K) / 유일로보틱스 (+18.85%)(879K) / 티라유텍 (+14.72%)(347K)

삼성·LG·SK 총출동..."AI, 삶 속으로 다이빙" 미리보는 CES2025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CES 현장을 찾는다. 3년 연속 CES를 방문하는 최 회장은 고객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인데, 최대 HBM 구매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의 만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로봇 자동화에 '뭉치돈'...새해에도 잭팟 터질까

▶대기업의 로봇업계 투자는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5월 SK그룹은 유일로보틱스에 367억원을 투자했다. 유일로보틱스는 배터리 제조기업 SK온의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SK그룹은 해외 생산 공정에 로봇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서산 공장에서 활용하던 유일로보틱스 제품을 미국 공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다른 글로벌 공장에도 로봇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에는 LS일렉트릭이 티라유텍의 지분을 매입했다. 지난 11월 기준 약 3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른 상황이다. 티라유텍은 자율주행로봇 생산 업체 티라로보틱스와 부품 도소매 업체인 티라아트로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엔젤로보틱스 (+16.49%)(1914K) / 로보티즈 (+13.98%)(2827K) / 로보스타 (+18.26%)(1294K)

올사년 새 전쟁터는 'AI로봇'... 재계 총수들, '휴머노이드' 등 선점 사활

LG전자는 2017년부터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로보틱스 등에 투자해왔으며 로보스타는 최대주주, 로보티즈와 엔젤로보틱스는 2대주주로 있다. 이 중 로보티즈와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납품 계약을 맺고 작년 부터 납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로보티즈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마켓앤드마켓이 작년 12월 전망한 '최고 서비스로봇 시장 목록'에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로보티즈의 현재 주력 사업군은 제조공장에 들어가는 협동로봇으로, 일명 '로봇팔'(매니퓰레이터)이다. 로보티즈는 작년 11월 MIT와 손잡고 '피지컬AI'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피지컬AI는 로봇팔에 AI 기술이 적용돼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기술로 '생성형AI'의 다음 단계로 평가된다. 이는 작년 1월 미 스탠포드대와 구글 딥마인드의 알로하 프로젝트가 공개된 이후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 프로젝트에 로보티즈의 다이내믹셀이 적용되면서 같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동기어 (+13.99%)(5658K)

(24.12.30)[특징주] 대동기어, 휴머노이드 AI 기술 적용 '무인 자율농업' 로봇 생산소식에 '강세' '농슬라' 대동, CES 2025 참가...복미 반등 실마리 될까

대동은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농업 기술을 선보인다. 실무진으로 마케팅팀과 홍보팀 직원이 부스를 찾는 관람객을 응대한다. 경영진에서는 김준식 회장과 원유현 부회장이 현장을 찾아 미래 신기술 트렌드를 살필 예정이다.

●유니퀘스트 (+13.08%)(7510K)

(24.12.30)[특징주] 유니퀘스트, 엔비디아 AI 로봇으로 '챗GPT 혁명' 잇는다...'핵심 솔루션' 젯슨 모듈 국내 독점 공급 '주목'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젯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니퀘스트는 지난해 10월 엡지 AI와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 젯슨 모듈과 개발자 키트 전 라인업을 국내에 공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엔비디아 젯슨은 백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AI 엡지 컴퓨팅 플랫폼이다. 지능형 머신 제조업체와 AI 개발자는 사전 훈련된 AI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젯슨 라인업 전반에 걸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지원을 통해 임베디드와 엡지 디바이스에서 고품질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을 구축, 배포할 수 있다.

●삼현 (+11.82%)(11365K)

'외형 유지' 삼현, 새 먹거리 발굴 매진

(24.12.26)삼현, '지능형 로봇 핵심부품' 개발완료...해외 고객사와 양산 계약 진행중

삼현은 현재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통합하는 3-in-1 기술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지능형 로봇에 사용되는 구동 모터를 생산 납품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국내회사와 공정 자동화를 위한 제조 로봇의 관절 부분을 구동하고 제어하는 모터를 개발 완료하여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해외 물류 업체와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코원테크 (+11.71%)(1244K)

코원테크, 북미 배터리 공장에 100억원대 자율주행 이송 로봇 공급

코원테크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 북미 공장에 100억원대 이차전지 전(前)공정 자율주행 이송 로봇(A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코원테크는 이차전지 공정 부문 무인이송로봇(AGV) 개발에 나서 2021년부터 전극공정의 롤 로딩·언로딩 기능의 AGV를 개발해 공급해왔고, 지난해에는 믹싱공정 AGV 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배터리사에 공급하고 있다.이번에 납품하는 AMR은 라이다 센서를 통해 3차원(3D) 맵을 구현하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 접목돼 유연하게 자재 이송이 가능하며, 기존의 AGV 장점인 주행속도와 물동량, 예지보전 기능도 갖춰 효율성을 높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제닉스 (+11.60%)(281K)

제닉스, 삼성전자 로봇사업 강화... 물류용 자율주행로봇 삼성전자 납품 부각 '강세'

제닉스는 무인물류자동화시스템(AMHS; 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개발 및 공장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유도장치로 일정한 주행 경로를 운행하는 무인이송전기차(AGV)·자율주행 이동로봇(AMR) △산업용 소재 및 부품 적재·관리 스토커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를 생산하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AGV와 AMR은 무인운반차량 및 자율주행로봇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 고광공정에 대응 가능한 AGV를 최초로 개발해 삼성디스플레이, BOE, CSOT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AGV·AMR은 누적 680대를 납품했으며, 삼성전자에 직납하고 있다.

●피앤에스미캐닉스 (+10.93%)(1295K)

[특징주]피앤에스미캐닉스, 휴머노이드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글로벌 무대 노크

피앤에스미캐닉스는 국내 과학기술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 로봇 및 제반의 첨단 로봇 기술들과 의료·자동화 관련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로봇 핵심 기술 내재화를 기반으로 개발, 생산, 영업과 서비스를 모두 관장하고 있으며 부품의 95%를 국산화했다.핵심기술을 실현하는 주요 혁신 기술은 하지 보행 재활훈련 로봇뿐만 아니라 상지 재활훈련 로봇, 웨어러블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화된 기술로 알려졌다. 피앤에스미캐닉스가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전자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씨메스 (+10.21%)(4532K)

(24.10.25)경영 협력·SI자격으로 씨메스에 지분 투자한 '쿠팡·SKT·GS리테일' 눈길

씨메스는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3D 비전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현재의 산업용 로봇이 정형화된 움직임을 반복하는 형태라면, 씨메스는 비정형화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으며 쿠팡, GS리테일 등도 전략적투자자(SI)로 합류한 바 있어 대기업군에서 지분투자를 한 업체로 알려졌다.주목할 점은 SK텔레콤, GS리테일, 쿠팡 등은 재무적투자자(FI)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SI)라는 점이다.업계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 FI(Financial Investor)는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경영권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수익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라며 "반면 전략적투자자 SI(Stragedy Investor)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 참여까지 열어두고 장기적인 관심에서 기업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 투자하는 장기적 투자자"라고 전했다.

(24.11.13)[특징주]씨메스,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100억대 존재할 것"...美 진출 실탄 확보

씨메스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씨메스는 3차원 비전 기반 AI 로보틱스 기술로 ▲AI 자율제조 관련 로봇 지능화 및 자동화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및 실증 개발 등에 참여한다. 5년간 매년 약 1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원익홀딩스 (+10.20%)(11227K)

(24.12.30)[특징주] 원익홀딩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본격화...알레그로 핸드 채택↑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가 엔비디아의 디엑스트림 프로젝트 로봇 팔로 채택된 사실이 부각되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오에스랩 (+4.60%)(6680K)

(24.11.27)CTT리서치 "에스오에스랩, 현대차 로봇에 라이다 독점 공급...내년 흑전 예상"
CTT리서치는 "에스오에스랩의 ML 3D 라이다가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랩에서 출시 예정인 다목적 모바일 로봇 'MobED(Mobile Eccentric Droid)'에 탑재돼 연말·연초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동사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돼 현대차 그룹의 로봇 시장 진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 AI >

●코난테크놀로지 (+15.05%)(253K) / 셀바스AI (+7.30%)(863K) / 솔트룩스 (+7.61%)(255K) / 한글과컴퓨터 (+5.20%)(553K)

다가오는 AI의 미래... 'AGI·초지능' 패권경쟁

학계에서는 '제한적 인공지능(ANI)'→'범용 인공지능(AGI)'→'초인공지능(ASI)'의 세 단계로 AI 진화를 구분한다. 인간 능력 수준의 기능을 갖춘 AGI는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문제를 인식,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 나아간다.전문가들은 AGI가 향후 2~5년 이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AGI를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정의한다면 2년 이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향후 5년 이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자율주행·로봇 산업은 SF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AGI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핵심 기술로 꼽힌다. 오픈AI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기업에 투자하고, 최근 사내 로봇팀을 마련해 자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플라리스오피스 (+13.68%)(3206K)

(24.12.19)플라리스오피스, 'CES 2025' 참가...토종 AI 오피스SW 기술력 선보여

플라리스오피스는 CES에서 AI(인공지능) 혁신상을 수상했다.우리나라 문서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서 CES에서 상을 수상한 기업은 플라리스오피스가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플라리스오피스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스템 'AI NOVA(노바)'를 통한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킨 문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AI NOVA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와 독자적 AI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가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AI 에이전트 기능이다. 다양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한 문서 작업과 이미지 편집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이스트소프트 (+8.86%)(954K)

(24.12.11)[특징주]"씨보니 확 다르다"...이스트소프트 AI '앨런'에 IT 업계 술렁

백 연구원은 "CES2025에서 PERSO.ai(AI 휴먼 서비스) 관련 부스를 설치해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라며 "PERSO.ai는 연초부터 김해시 AI 휴먼 기반 스마트경로당 개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탑재 등 국내외 레퍼런스를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와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파악한다"며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초 이스트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내 '프리빌트 AI 휴먼 아바타 영상 제작 앱'(AI 휴먼 영상 제작 앱) 서비스 탑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그는 "어떤 형태의 협업인지, 언제 공개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CES2025는 파트너십 성과를 공개하는 최적의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백 연구원은 또 "AI 검색 서비스 Alan은 Gpt-4o를 기반으로 zum.com의 DB와 연동해 최신 뉴스 및 웹 기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2500만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알툴즈와 연계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음AI (+7.56%)(981K)**

(24.12.26)마음AI, '세계 최고' AI 학회서 MS·구글 제쳤다...'NeurIPS 2024'서 테슬라, 웨이모 등 '관심'

논문에서 마음AI는 국내 최초로 비전언어행동(VLA·Vision Language Action) 모델 '캔버스(CANVAS)'를 공개했다. 카메라로 환경을 인지하고(Vision), 이를 언어적으로 이해하며(Language), 로봇을 제어(Action) 하는 새로운 AI 기술의 표준을 제안한 것이다.해당 기술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천문학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야로, 마음AI가 이에 뒤지지 않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라는 설명이다.이번 논문의 1저자이자 NeurIPS 학회에서 직접 논문을 발표한 조용준 마음AI 선임연구원은 "이번 학회 기간 동안 테슬라, 구글 웨이모, 크루즈 등 주요 자율주행 로봇 회사의 연구원들과 교류하며 VLA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양자암호 / 양자컴퓨터** >

●**한국첨단소재 (+29.98%)(11688K) / 한울소재과학 (+12.38%)(350K) / 엑스게이트 (+9.62%)(4954K)**

한국첨단소재, 거래재개 되자 또 상한가

(24.12.18)[특징주]한국첨단소재, 양자 얽힘 광자 기술이전...美양자컴퓨터 관련주 부각에 ↑

한국첨단소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 양자기술연구본부가 개발한 PPLN(Periodically Poled Lithium Niobate) 광집적 회로를 기반으로 양자 얽힘 광자 쌍을 생성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양자 원격전송과 다중 노드,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에 필수적이며, 양자 암호통신, 양자 컴퓨팅, 양자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응용 분야에서 활용된다.한국첨단소재는 양자 암호통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자 키 분배(QKD) 시스템의 필수 소자인 공간섭계 모듈을 개발하고, 유럽의 양자 암호 시스템 기업 스위스 ID Quantique(IDQ)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파인텍 (+19.59%)(22658K)**

[특징주] 파인텍, SDT 韓 유일 엔비디아 양자컴퓨팅 생태계 진입...투자 및 파트너십 체결 '강세'

국내 유일의 양자컴퓨팅 기업인 에스디티는 엔비디아의 양자컴퓨팅 파너사인 애니온과 협력관계에 있다.애니온은 엔비디아 CUDA-Q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애니온은 협력사로 국내 유일 양자컴퓨팅 기업인 SDT를 선택했다.파인텍은 지난해 10월 에스디티에 전략적 투자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에스디티가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축을 담당하고, 파인텍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무림P&P (+4.06%)(11231K)**

韓유일의 양자컴퓨터社, 美엔비디아 양자 컴퓨터 생태계 합류 '관심집중'

SDT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국내 1호 양자기술기업 IPO 준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상장사인 GS, 무림P&P(무림캐피탈), 시공테크(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뿐만 아니라 대형 VC(신한벤처투자, DS자산운용, IBK투자증권, BYB인베스트먼트, 팁스, AG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까지 SDT의 미래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 (+29.99%)(1797K) / 형지I&C (+29.97%)(9566K), 형지엘리트 (+21.17%)(16048K) / 동원금속 (+29.92%)(15373K) / CS (+24.36%)(3582K) / 일성건설 (+24.04%)(12489K) / 코이츠 (+20.37%)(3581K) / 나우IB (+18.69%)(11637K) / 카스 (+17.61%)(3416K) / 이스타코 (+17.43%)(7474K) / 에이텍 (+17.41%)(3339K) / 디젠스 (+16.98%)(9520K) / 위세아이텍 (+13.42%)(495K) / 월비스 (+13.14%)(2108K) / 오리엔트바이오 (+12.22%)(55197K) / 에이텍모빌리티 (+11.56%)(548K) / 원티드랩 (+11.37%)(193K) / 수산아이앤티 (+11.35%)(369K) / 프리엠스 (+10.95%)(477K)**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TK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 이재명 25.7%, 홍준표 16.1%
이재명,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1위...홀로 30%대 '독주'
'지지율 35%' 압도적 1위 이재명, 최대 숙제는 '비호감 58%'

● **오세훈 관련주: 포메탈 (+12.67%)(548K) / 진양산업 (+10.87%)(1406K), 진양화학 (+10.23%)(500K)**

● **홍준표 관련주: 경남스틸 (+6.82%)(2956K) / 한국선재 (+2.99%)(804K)**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5%-홍준표 8.9%-오세훈 8.7%

이 대표는 39.5%로 집계됐다. 홍 시장, 오 시장, 한 전 대표에 이어 야권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4.8%)과 김동연 경기도지사(4.3%)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7%),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3.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3%) 순이었다.

●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 (+6.16%)(1447K)**

"한동훈, 이달 복귀할 것...죄짓고 도망친 것 아냐" 군불때는 친한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2일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이르면 1월 중순쯤에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거나 강연을 하는 등 공개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다"라며 "아마 1월부터는 어떤 행동을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BIO >

●진시스템 (+29.38%)(921K)

[특징주] 진시스템 주가 급등, 인도 대형 계약 체결 주목...매출 대비 32배

해당 계약은 인도 시장에 현지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및 소모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8일까지다.계약 상대방은 인도의 Genetix Biotech Asia Pvt. Ltd.로, 이 기업은 진시스템의 협력사로 3년간 동종계약을 유지해왔다. 계약 총액은 약 294억8200만원으로, 진시스템의 2023년 매출액(약 89억7027만원)의 3286.63%에 해당한다.

●수젠텍 (+20.45%)(4719K) / 맥아이씨에스 (+16.68%)(537K) / 씨젠 (+6.14%)(1105K) 랩지노믹스 (+5.62%)(8167K)

중국 내 호흡기 감염병 유행...국내 수혜 바이오는(?)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코플라즈마 바이러스와 세포용합 바이러스가 높은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인플루엔자 역시 계절적 유행기에 접어들면서 환자 폭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국방 / 방산 >

●LIG넥스원 (+15.19%)(640K)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33%)(541K), 한화시스템 (+5.75%)(3679K) / 현대로템 (+4.83%)(1536K)

[특징주] 수출 지원책에 한화에어로 10%·LIG넥스원 13% 상승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한 영향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000억 원을 수출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원전·방산 펀드를 신설하는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방산업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수혜도 예상된다.

< 개별주 >

●하나기술 (+15.39%)(218K)

하나기술, 이차전지 라지셀 초고속 스테킹 양산화 성공...프랑스 첫 출하

앞서 하나기술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차전지 고속 스테킹 양산라인 및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출하는 해당 계약건들의 첫 번째 성과다. 이번에 하나기술이 공급하는 장비는 파우치형 라지셀(600mm) 기준 초고속 속도와 ±50μm 이하의 정밀성을 갖추고 있어 기존 공정 대비 효율성 및 품질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벌비스 (+13.29%)(776K)

현대글로벌비스, 현대.기아차와 6.7조 원 규모 운송 계약 체결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기아차와 약 6조7000억 원 규모의 완성차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현대글로벌비스는 미주와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 등 세계 전역에 현대·기아차의 수출 차량을 운송하고 있다. 이번 계약 물량은 현대·기아차 전체 완성차 수출 물량의 50%에 달한다.

●**에이치브이엠 (+11.84%)(1960K)**

(24.12.03)[기업탐구] 에이치브이엠, 첨단 금속으로 스페이스X 랠리에 '탑승'

에이치브이엠은 우주 방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특수첨단금속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과 소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체에 첨단금속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스페이스X에도 첨단금속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트론텍 (+11.02%)(750K)**

유니트론텍, 인천공항의 테슬라 되나...공항화물 자율운송 테스트

자회사(지분율 51%)로 인수한 토르드라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공항, 물류센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 기반 사업을 확장 중이다. 최근 미국에 이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도 자율주행으로 화물을 나르는 시험 운행에 착수했다. 토르드라이브를 통해 유니트론텍의 잠재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설립된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 기술 전문기업으로 라스트마일 배송과 자율주행 물류 솔루션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이마트와 시범운영 계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 배송을 했다. 2020년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세계 최초로 실내 무인 운송 수단 '에어 라이드'(Air Ride) 2대를 공급했다.

●**와이제이링크 (+9.15%)(3240K)**

테슬라-스페이스X 고객사 확보한 와이제이링크, 북미 신공장 착공

와이제이링크 관계자는 "멕시코 공장은 착공을 했다"라며 "인도 공장은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동 예정인 멕시코 생산법인은 2200평 규모의 생산공장과 물류센터로 활용된다. 주력 장비인 SMT를 월 200대 생산 가능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시장 내 북미 전 지역 첨단 산업 회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 생산법인은 2027년 가동 계획이며, 인도 내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도모한다. 인도의 자국보호정책을 빚겨가겠다는 전략이다. 와이제이링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ASE를 비롯한 글로벌 톱티어 기업 등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테슬라와 협업하는 모든 전자제품 생산전문기업(EMS)에 SMT 라인 공급을 확대하며 현재까지 전장부품 SMT 라인 장비 20대의 75%인 15대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2025.01.02.(목) 두 장으로 보는 이브닝

“삼성전자 등 대기업 로봇 시장 진출 확대...
로봇 관련주 강세”

▼ 코스피 2,398.94 (-0.02%)

▲ 코스닥 686.63 (+1.24%)



레인보우로보틱스 (+29.99%) ▲
 두산로보틱스 (+28.11%)
 유진로봇 (+22.12%)
 아진엑스텍 (+19.30%)
 큐렉소 (+18.58%)
 로보스타 (+18.26%)
 휴림로봇 (+17.18%)
 에브리봇 (+16.41%)
 뉴로메카 (+14.61%)
 해성에어로보틱스 (+13.19%)
 나무가 (+11.20%)
 로보로보 (+10.61%)
 라온테크 (+10.61%)
 코닉오토메이션 (+10.00%)
 TPC (+9.97%)

에스비비테크 (+30.00%) ▲
 이랜시스 (+29.82%) ▲
 에스피지 (+21.58%)
 삼익THK (+17.71%)
 인탑스 (+15.87%)
 우림피티에스 (+13.45%)
 알에스오토메이션 (+11.86%)
 이삭엔지니어링 (+10.71%)
 인텍플러스 (+6.88%)
 하이젠알앤엠 (+30.00%) ▲
 에스피시스템스 (+30.00%) ▲
 클로봇 (+25.59%)
 케이엔알시스템 (+25.00%)
 모델솔루션 (+23.60%)
 이미지스 (+22.43%)

티로보틱스 (+19.26%)
 유일로보틱스 (+18.85%)
 티라유텍 (+14.72%)
 엔젤로보틱스 (+16.49%)
 대동기어 (+13.99%)
 로보티즈 (+13.98%)
 유니퀘스트 (+13.08%)
 삼현 (+11.82%)
 코원테크 (+11.71%)
 제닉스 (+11.60%)
 피앤에스미캐닉스 (+10.93%)
 씨메스 (+10.21%)
 원익홀딩스 (+10.20%)
 에스오에스랩 (+4.60%)



2025.01.02.(목) 두 장으로 보는 이브닝

“삼성전자 등 대기업 로봇 시장 진출 확대...
로봇 관련주 강세”

▼ 코스피 2,398.94 (-0.02%)

▲ 코스닥 686.63 (+1.24%)

정치

이재명		오세훈	
동신건설 (+29.99%) ▲	나우IB (+18.69%)	월비스 (+13.14%)	포메탈 (+12.67%)
형지&C (+29.97%) ▲	카스 (+17.61%)	오리엔트바이오 (+12.22%)	진양산업 (+10.87%)
형지엘리트 (+21.17%)	이스타코 (+17.43%)	에이텍모빌리티 (+11.56%)	진양화학 (+10.23%)
동원금속 (+29.92%) ▲	에이텍 (+17.41%)	원티드랩 (+11.37%)	
CS (+24.36%)	디젠스 (+16.98%)	수산아이앤티 (+11.35%)	홍준표
일성건설 (+24.04%)	위세아이텍 (+13.42%)	프리엠스 (+10.95%)	경남스틸 (+6.82%)
코이즈 (+20.37%)			한국선재 (+2.99%)
			한동훈
			오파스넷 (+6.16%)

BIO

진시스템 (+29.38%)
수젠텍 (+20.45%)
멕아이씨에스 (+16.68%)
씨젠 (+6.14%)
랩지노믹스 (+5.62%)

국방 / 방산

LIG넥스원 (+15.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33%)
한화시스템 (+5.75%)
현대로템 (+4.83%)

개별주

하나기술 (+15.39%)
현대글로벌비스 (+13.29%)
에이치브이엠 (+11.84%)
유니트론텍 (+11.02%)
와이제이링크 (+9.15%)

